CONDERI

CONDERI DAILY INSIGHT | 일일 인사이트 리포트 | 대외 공개판

빚으로 사는 컴퓨팅: 하이퍼스케일러의 7,200억 달러 결단 — 부채 조달 전환, 오일 쇼크 반전, AX 채용 전면화

Buying Compute on Credit: The Hyperscalers' $720 Billion Wager — The Debt-Financing Pivot, the Oil Reversal, and the Mainstreaming of AX Hiring

본 리포트의 독자 및 활용 가이드

이 리포트는 2026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글로벌 시장과 국내 산업 현장의 급변을 창업가, 경영진, 엔지니어, 투자자, HR 담당자가 함께 읽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일일 산업 인사이트입니다. 모든 수치는 공개된 공식 출처(정부 통계, 학술 문헌, 시장조사기관, 주요 언론 보도)로 검증했으며, 추정치와 확정 실적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했습니다. 글보다 도표와 그래프가 먼저 말하고, 텍스트는 그 해설을 돕습니다.

문서 정보 / Document Information

문서등록번호 Document No.	CONDERI-IR-2026-11-08
발행일자 Published	2026. 11. 08. (일) Sunday
권호 Volume	VOL. 2026-11-08
분석기간 Coverage	2026. 11. 06 ~ 11. 08 (직전 3일 전수)
배포구분 Distribution	Public | 일반공개
발행기관 Publisher	CONDERI AI산업전략연구실
조사·집필 Research	AI산업전략연구실

종합 요약: 빚으로 사는 컴퓨팅과 병목의 이동

Executive Summary (KR) | 2026년 11월 6일~8일 글로벌 동향 압축 분석

빅테크 4사 연간 CAPEX 가이던스 (11-06)

$720~740B

3분기 결합 투자 $208.7B, 전년 동기 대비 +84%
아마존 분기 $75.8B 사상 최대 (Motley Fool·The Elec)

AI 인프라 부채 조달 전환 (11-03~05)

$131B

아마존 최대 $80B 대출·MS $25B 회사채·구글 EUR 6B·메타 $15B
유동성 유지를 위한 자본시장 개입 공식화 (DCD·The Elec)

채용 전형의 AX 전면화 (11-05~06)

6.7배

AI 프롬프트 자격시험 'AI POT' 접수자 2년새 6.7배
기아·HD현대·SK AX 신입 전형에 AI 활용 평가 도입 (문화일보)

한눈 요약

이번 주의 문법은 **"돈이 아니라 공급이 병목인 시장, 그리고 그것을 빚으로 사는 결단"**이었다. 빅테크 4사는 올해만 7,200억~7,400억 달러를 설비투자에 쓰기로 하면서 3분기에만 2,087억 달러(전년 대비 +84%)를 집행했고, 알파벳·메타· 아마존은 결합 기준 452억 달러의 마이너스 현금흐름을 기록하며 시장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축소는 없었다 — 아마존은 최대 800억 달러 담보 대출 한도를 확보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50억 달러 사채를 발행했으며, 구글은 유로채 60억 달러를 준비하는 등 4개사가 합계 1,310억 달러를 자본시장에서 조달하며 AI 인프라 전쟁을 '당기손익'에서 '장기부채'로 옮겼다. 병목은 자금이 아니라 공급이었다: MS의 투자 미달은 서드파티 용량 지연 때문이었다. 거시 계에는 오일 쇼크의 반전이 왔다 — 브렌트유가 주간 -14%로 10월 7일 이후 처음 배럴당 100달러를 무너뜨리며 연준 12월 인상 확률이 84%에서 77%로 꺾였다. 국내는 10월 소비자물가 2.8%로 2.9% 보다 낮아졌다. 채용 시장은 AX 전면화가 공식화됐다: 기아가 업계 최초 'AI 문제해결력' 검증을 도입했고, AI POT 응시자는 2년새 6.7배로 늘었다. 교육 현장은 AIEP의 635억 원 투자 대비 일평균 방문률 1.63%라는 냉정한 감사 결과와, '교사가 AI 문제해결자가 되는' 대전·부산의 실험이 교차했다.

본 리포트의 구성 (장절 체계)

I. **주간 브리핑 | 직전 3일 글로벌 5대 동향 (창업 — 기술 — 경제 — 경영/HR)** p.04 ~ 07
II. **심층 분석 | 공교육 AI 플랫폼의 이용률 감사, 에듀테크 산업 실증, 교사의 역할 재정의** p.08 ~ 10
III. **빅테크 CAPEX 지표 | 분기 투자·연간 가이던스·현금흐름 팩트 테이블** p.11
IV. **핵심 시사점 (Key Takeaways) 및 참고자료** p.12

Executive Summary (EN)

English abstract of the 5 cross-sector signals, Nov 6-8, 2026

The Week in One Page

1. Hyperscaler capex went from cash flow to credit. The four largest AI infrastructure spenders set a combined 2026 capex guidance of $720-740B and executed $208.7B in Q3 alone (+84% YoY). Alphabet, Meta and Amazon together pushed free cash flow $45.2B negative - the first time the group has run below zero - and responded not with cuts but with the sector's first coordinated debt pivot: Amazon secured up to $80B in loan facilities, Microsoft sold $25B of bonds, Google prepared a EUR 6B offering and Meta a $15B one ($131B in total).

2. The bottleneck moved from money to delivery. Microsoft's Q1 FY27 capex of $45.2B missed forecasts because third-party GPU capacity slipped into the second half; commercial backlog still grew 73% to $677B, and AWS's backlog stands at $578B.

3. Oil crashed and hawkish bets eased. Brent fell 14% for the week and broke below $100/barrel for the first time since Oct 7, cutting the probability of a December Fed hike from 84% to 77%. Korea's October CPI slowed to 2.8%.

4. AX hiring became mainstream. Kia introduced an industry-first AI problem-solving screen, HD Hyundai and SK AX added AI-use assessments, and Korea's AI POT certification saw applications rise 6.7x in two years (1,309 to 8,759).

5. Public edtech got an audit grade. Korea's AIEP platform, built by 11 education offices for 635B won, drew only 1.63% of registrants daily in Q3 - a hard lesson in adoption economics for a sector that plans 155B won more next year, while edtech firms shipped measurable wins (a math class rising 72.4 to 81.6 points in five months).

Key figures table (public sources)

Indicator	Value	Window	Source
Big-4 combined 2026 capex guidance	**$720-740B**	FY2026	Motley Fool research
Q3 2026 combined capex	**$208.7B (+84% YoY)**	Jul-Sep 2026	Motley Fool research
New debt & financing secured	**$131B**	Nov 3-5	The Elec / DCD filings
OpenAI first tranche wired	**$11B @ $1.25T**	Nov 6	Bloomberg
Brent crude weekly move	**-14%, below $100**	week to Nov 5	Le Private banker / EDaily
Korea October CPI (YoY)	**2.8%**	Nov 3 release	National Data Office
AIEP daily visitor rate	**1.63% of 1.27M registrants**	Jul-Sep 2026	Seoul Ed. Office / Rep. Kim

I-1. 창업·벤처캐피털: 만 달러의 시대, 그리고 국가주주의 등장

Venture & Startup Signals | OpenAI 인출, Anthropic IPO 파일링, AI 에이전트 보안에 1.5억 달러

주간 딜 브리핑 (11-06 ~ 11-08 확인 기준)

기업	규모	내용	출처
OpenAI	$11B @ $1.25T	1차 트랜치 입금 완료. 라운드 총규모 최대 $20B로 조정(이전 목표 $30B+ 축소)	Bloomberg
Anthropic	IPO 파일링	선두 AI 연구소 최초로 재무가 공식 기록에 노출되는 상장 절차 개시	StartupMafia
Fal	$1.3B Series F	생성 미디어 인퍼런스. 베슬머 벤처파트너스 주도 — 이번 주 최대 딜	StartupReader
Nooks	$500M	AI 세일즈 플랫폼. 비희석(non-dilutive) 커밋먼트로 확장	RuntimeWire
Sentra	$150M Series C	AI 에이전트가 접근하는 데이터 보안. 캐피탈원 벤처스 주도, 누적 $250M+	CTech
Cohere	C$7B Series E	기업가치 C$35.7B. 캐나다 정부가 최대 C$1.6B 지분 참여 — 국가주주 등장	StartupMafia
Applied Compute	$350M @ $3.25B	기업용 오픈소스 커스텀 AI 모델. ARR 1억 달러 돌파	StartupRise
Traversal	$120M @ $1B	AI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SRE) 플랫폼	StartupRise

주간 벤처 유동성 (StartupReader 집계)



$6.51B
주간 공개 조달액
(2~8 Nov, 77건 공시)

14건
AI·머신러닝 섹터 딜 수 —
섹터 1위 (약 $2.06B)

시드 라운드가 15건으로 가장 활발. 사이버보안 3건 ~$168B 규모로 AI 에이전트 보안(Sentra)이 견인했다.

[POINT] 이번 주의 신호는 두 가지다. 첫째, 희석 대신 **비희석 자본과 부채**가 딜 구조의 중심으로 왔다(Nooks $500M, 하이퍼스케일러 4사 $131B 조달). 둘째, **국가가 AI 기업의 주주로 직접 들어오기 시작했다**(캐나다-Cohere). 자본 조달의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I-2. 기술·인프라: 부채로 전환된 CAPEX 전쟁, 병목은 돈에서 공급으로

Tech & Infrastructure Signals | $131B 조달, 채권 금리 4.85~6.35%, 백로그 $677B

하이퍼스케일러 4사 AI 인프라 조달 브리핑

기업	수단	규모·조건
아마존	담보부 대출 한도	최대 **$80B** — 변동금리, 대출일 기준 5년 만기, 2027년 1분기~2028년 3분기 집행 예정. 별도 $20B 리볼버 보유
마이크로소프트	사채 10부제	**$25B** — 금리 4.85~6.35%, 11-04 클로징. 분기 CAPEX $45.2B(기대 $50B 미달) 후 첫 회사채 발행
구글(알파벳)	유로채	**EUR 6B** — 금리 3.7~5.25%. 3분기 FCF -$9.01B(예상 -$2.7B 대비 큰 적자)로 주식 장중 -11%까지 급락했던 배경
메타	사채 + 지금	**$15B** 사채(11-03) + 최대 $97.5B 지금 조달 계획 공개. 연간 CAPEX 가이던스 $135~145B

합계 약 **$131B**. 4개사 모두 지난주 실적 발표와 함께 공시 (The Elec / Data Center Dynamics / SEC 파일링).

병목의 이동: 돈 → 공급

MS의 3분기 투자 미달은 검약이 아니라 **'서드파티 용량 지연'** 때문이었다 — GPU-as-a-service 업체들에 빌린 데이터센터 용량이 회계연도 하반기로 밀렸다. MS 상업 백로그는 여전히 **73% 증가한 $677B**에 달하고, 아마존 AWS 백로그는 **$578B**다. 수요가 공급을 앞서 있는 한, 조달 축소는 공급 지연만으로도 일어난다. 이는 AI 인프라 공급망(전력·변환기·GPU 캐비닛)이 새로운 선결제 시장이 됐다는 뜻이다.

Q3 2026 분기 CAPEX (단위: $B)



4사 합계 $208.7B, 전년 동기($113.4B) 대비 +84%. 아마존·알파벳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FCF 적자 전환 (직전 분기, $B)



알파벳 -$9.1 / 아마존 -$33.5 / 메타 -$2.1 (Bisnow 집계). 한 해 전년 대비 $81.6B의 흑자→적자 역전.

[CHECK] MS CFO 에이미 후드의 표현이 요약이다: "우리는 채권 시장에 접근할 행운이 있고, 아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 날 250억 달러 사채 발행이 공시됐다. **'부채로 전환한 CAPEX'는 금리 민감도를 새로 산업에 도입했다** — 이제 AI 인프라는 금리 사이클의 직접 소비자다.

I-3. 거시 경제: 오일 쇼크의 반전과 연준 인상 확률의 꺾임

Macro Signals | 브렌트 -14%, 12월 인상 확률 84% → 77%, 한국 CPI 2.8%

직전 3일 거시 이벤트 타임라인

일자	이벤트	결과와 의미
11-05 (목)	유가 반전	브렌트유 주간 **-14%**, 10-07 이후 처음 배럴당 $100 붕괴. 연준 12월 인상 확률 84% → **77%**로 하락 (EDaily·TradingEconomics)
11-05 (목)	미 국채	미 10년물 한 달 새 -0.4%p 하락, 장중 **4.89%**까지 하락. 원화 강세 요인
11-06 (금)	미 고용보고서	10월 비농일 **+165,000**(예상 65,000의 2.5배), 실업률 4.1%로 하락 — '저해고·저채용' 국면 확인
11-03 (화)	한국 물가	10월 소비자물가 **2.8%**(전월 2.9%, 예상 2.85% 하회). CPI 지수 120.73
11-05 (목)	한국 경상수지	9월 경상수지 **+61.5억 달러** 흑자(전월 46.1억 달러) — 원화 강세 기반 지속

연준 12월 인상 확률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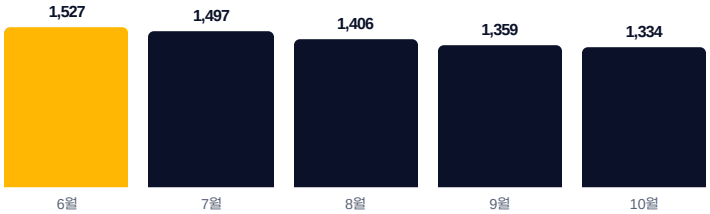


변수는 유가다. 브렌트 $100 붕괴 → 에너지 물가 압력 완화 → 인상 개연성 소멸 경로. 10월 CPI(11-11 KST)에 유가 급락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12월 9일 회의 전 마지막 판단 근거다.

다음 주 관전 포인트

11-10(화) 발표되는 **미 10월 CPI**가 관건이다. 유가 급락이 에너지 항목에 반영되면 CPI가 3% 중반에서 완만히 내려와 연준 동결 기대가 강화된다. 국내는 11-26 **금통위**가 남았다 — 한은은 7·8월 인상 후 3.00%로 동결 중이며, 시장금리는 국고채 10년물 4.0% 내외에서 완만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 3개월 연속 하락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수출업체 달러 매도, 한은의 긴축 기조가 원화 강세를 지탱. 중간선거 이후 정책 기조 변화가 남은 변동성 요인.

I-4. 경영·HR: 채용 전형의 AX 전면화 — "AI를 쓰는 법"을 시험하기 시작하다

Management & HR Signals | 기아 업계 최초 AI 문제해결력 검증, AI POT 응시자 6.7배

신입 채용에 'AI 활용 역량'을 넣은 기업들 (11-05 ~ 11-06 보도)

기업	도입 전형	평가 방식
기아	AI 문제해결력 검증	하반기 신입 업계 최초. AI를 도구로 써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 평가
HD현대	AI 활용역량검사	하반기 공채 첫 도입. 생성형 AI로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파악, 면접 자료로도 활용
SK AX	AI 리터러시 인증시험	AI와 대화하며 사업기획·SW개발·시장조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산출물 품질까지 평가
넥슨	AI 면접 1시간	채용형 인턴십 전형에서 AI와의 대화로 전공 지식·문제 접근·구조적 사고력 검증
크래프톤	AI 네이티브 채용	6개 직군 인턴 100명+. 결과물뿐 아니라 문제 정의·AI 활용·검증 과정 전체를 살핌
KT	AX 직무역량평가	자소서에 AI 성과 경험 기재, 면접에서 활용 사례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묻는 전면 반영

AI POT 자격시험 응시자 (명)



한국생산성본부 'AI 프롬프트 활용능력시험' 접수자 2년새 약 6.7배. 채용 전형 개편이 수험 시장을 움직였다.

사내 AI 전환(AX) 인재 육성 3례

중진공은 제조AI 교육센터를 개소하고 2030년까지 중소기업 AI 전문인력 **6만 명** 양성을 선언했다(11-06). **깨끗한나라**는 청주공장 실습형 교육 1·2기에서 생산·자재·품질 등 6개 영역 **22개 자동화 메뉴**를 임직원이 직접 개발했다(11-06). **유안타증권**은 임원-부서장-직원 3단계 'AIbility Academy STEP-UP'으로 바이브코딩· AI 에이전트 실습을 도입하고 수료자 20명을 사내강사로 육성한다(11-05). 공통점: **외부 교육이 아니라 '사내 과제 해결'이 교재**다.

노동시장의 경고 신호

국가데이터처 기준 9월 청년 고용률은 **29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 집계로는 최근 4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 28만 5천개 중 **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 서울대 이찬교수(11-05 인터뷰): "AI 시대에 사라지는 것은 직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 — 경쟁력의 축은 지식 보유에서 **학습 민첩성**(스스로 배우는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II-1. 국내 에듀테크 현장: 635억 원 플랫폼의 감사 결과와 산업의 답

Korea EdTech Field Notes | AIEP 일평균 방문률 1.63%의 의미

공공 AI 맞춤형 교수·학습플랫폼(AIEP) 이용률 감사 (11-03 국정감사 자료)



11개 시도교육청 누계(학생 108.8만·교사 17.5만). 월 평균 방문자 17.40%, 일 평균은 1.63%에 그쳤다.

투자와 산출의 괴리

항목	수치
누적 투입 예산	**635억 원** (2023년 개발 착수~올해 운영비, 서울 180억 최대)
2차 고도화	사업자 선정 완료, 내년까지 **추가 155억 원** 투입 예정
일평균 방문률 하위	울산 0.25% · 대전 0.49% · 전북 0.79% · 강원 0.83% (4개 교육청 1% 미달)
9월 단독(개학 영향)	일 평균 2.25% · 월간 21.37% — 3개월 평균 대비 소폭 개선에 그침

교사가 진단한 4대 한계 (서울 대원국제중 강한겨레 교사)

[POINT] **교과 중심 체계** — 한 교과를 여러 교사가 나눠 담당하면 한 사람의 반대로 전 교과가 사용 불가
[POINT] **기기 규제** — 학교 내 디지털기기 규제 추세로 기기가 없는 학생층 존재
[POINT] **연동 부족** — 기존 인터넷 플랫폼과 자료 이전 불가, 전환 비용 전부 사용자 부담
[POINT] **정보보안** — 서울·대전·경남·전남 교육청의 구글 클래스룸 개인정보 탈취 사례가 상기사항

[INSIGHT] AIEP의 감사 수치는 공공 에듀테크의 본질적 질문을 던진다: **배포(distribution)가 아니라 채택(adoption)이 산출**이라는 것. 635억 원은 '구축'의 가격이었고, 방문률 1.63%는 '채택'의 가격이 따로임을 보여준다. 민간 에듀테크의 실증 데이터(다음 페이지)가 시사하듯, 성과는 사용량이 아니라 학습 변화로 측정돼야 설득력을 가진다.

교사가 제시한 활성화 경로

초등 전체·중고등 1학년에서의 적극 활용(세로 확산), 학교별 사용 현황 파악 후 맞춤 개선, 정보부장 선학습 후확산 모델 — **플랫폼이 아니라 전파 구조의 문제**로 규정됐다.

II-2. 에듀테크 산업: 실증으로 증명한 학습 효과와 축소하는 학령 인구

EdTech Industry Signals | AI 채점으로 9.2점 상승, 통폐합 학교 지원 확대

프리윌린 '스쿨플랫' 서울·전북 소프트랩 실증 결과 (11-03)



전북 9개교 236명(5~10월). 남원도통초 4학년 학급 평균 72.4 → **81.6점(+9.2)**, 이리모현초 5학년 학급 정답률 38% → **72%**. 손으로 쓴 수학 풀이를 AI가 채점·첨삭하는 서술형 AI 채점 기능이 핵심.

산업의 계산법

스쿨플랫은 전국 **3,641개 초·중·고**에서 활용 중이며 수학에서 영어·과학으로 확대 중이다. 프리윌린은 교육부의 서·논술형 평가 단계적 확대 정책에 맞춰 'AI 채점 초안 + 교사 검수' 구조를 전략으로 명문화했다 — 권기성 대표: "AI가 채점 초안을 준비, 선생님이 학생 학습을 살피고 지도하는 데 집중하도록." **자동화가 교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방향**이 산업 표준 문장이 되고 있다.

아이스크림에듀: 통폐합 학교 지원 (11-03)

지표	수치
최근 5년 통폐합 학교	**153곳** (초 120 · 중 24 · 고 9)
졸업생 10명 이하 초·중·고	올해 **1,863곳** → 2030년 **2,026곳** 추산
지원 내용	홈런 학습기·콘텐츠 + 1:1 관리교사, AI 학습 분석 기반 맞춤 학습·AI 드림쌤 상담

학령인구 감소가 학습 공백 문제로 전이되는 구조. 에듀테크가 '학교가 사라진 곳의 연속성'을 담당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천재교육 T셀파: 찾아가는 AI 연수

지니아튜터를 실제 수업에서 쓰는 현직 교사가 학교를 방문해 연수하는 '지니아튜터 GO!'를 11-30까지 모집 중이다(11-07 보도). 학교별 5명 이상 신청 시 전문 강사 배정. **사용자(교사)의 실전 사례가 영업 채널이 되는 구조**로, 공공 플랫폼의 전파 구조 문제(II-1)와 정확히 대칭된다.

II-3. 교실의 정책 분기점: 교사가 AI 소비자에서 문제해결자로

Policy Inflection in Classrooms | 대전 1인 1 AI 튜터, 부산 전국 최초 스쿨 AI 리빙랩

대전교육청 '1인 1 AI 튜터' 구상 (11-06, 충남대 공동 포럼)

교육감 직속 총괄 조직이 **4개 분야 16개 실행과제**를 관리하고, 5단계 성장 경로를 제시했다: [1] AI 기초학력 책임제 → [2] 1인 1 AI 튜터 → [3] 학생별 학습 플랫폼 → [4] AI 진로·진학 지원 → [5] 대덕특구·기업 연계 인재 양성. 충남대는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AI 연수, 대학생 멘토 체험교실, **GPU 시설 공동 활용**을 협력 과제로 제안했다.

지역 대학·연구기관·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파이프라인 설계 — 교실에서 시작해 특구에서 끝나는 구조다.

부산교육청 스쿨 AI 리빙랩 (전국 최초, 11-05)

단계	일정·내용
사전연수	11-06 온라인
문제발굴·디자인씽킹	11-07, 선도단 교사 40명
AI 에이전트 워크플로우·웹앱 제작	11-14 발표
오픈소스 하드웨어 실습	11-21 (초등 마이크로비트·중고등 ESP32)

2027년에는 학교급별 AI 도우미 3종 개발과 '스쿨 AI 빌드톤' 확산을 계획. 기존 연수가 도구 사용법이었다면, 이번엔 **교사가 문제 정의부터 앱 제작·배포까지 직접 수행**하는 제작 중심 연수다.

두 실험이 말하는 같은 문장

대전과 부산의 실험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같은 정책 문장의 두 번째 문단**이다. AIEP의 방문률 감사 (II-1)가 보여준 교훈 — '학생에게 배포해도 교사가 채택하지 않으면 산출은 없다' — 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 **교사를 1차 사용자로 격상**하는 것이다.

소비자 → 문제해결자

교사-AI 관계

부산의 리빙랩은 '교실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라는 전제 위에 문제 발굴 → 프로토타입 → 현장 적용 → 결과 환류의 전 과정을 놓았고, 대전의 5단계 경로는 그 교사가 만든 해법이 지역 산업(대덕특구·기업)으로 이어지는 **인재 파이프라인의 출발점**을 놓았다.

[INSIGHT] 에듀테크 기업의 진입점이 바뀐다. 학생·학부모 B2C에서 교사·교육청 B2G로의 전환이 아니라, **'교사가 만든 교실 솔루션'을 검증·확산하는 중간 계층**(리빙랩, 소프트랩, 빌드톤)이 새 유통 계층으로 뜬다. KERIS 소프트랩(II-2)처럼 실증 데이터를 주는 파트너십이 이 시장의 표준 계약서가 될 것이다.

III. 빅테크 CAPEX 지표: 분기 투자·연간 가이던스·현금흐름 팩트 테이블

Hyperscaler Capex Fact Tables | Q3 2026 실행액과 2026 가이던스, FCF 적자 전환

2026 연간 CAPEX 가이던스 (십억 달러)



항목	값
4사 합계 가이던스	**$720~740B**
Q3 2026 결합 실행액	**$208.7B** (+84% YoY)
2024 → 2025 결합 CAPEX	$224B → $413B (+84%)
2027 결합 데이터센터 CAPEX 전망	**약 $1.47T** (모건스탠리, 정점 후 2028 +12% 둔화)

Q3 2026 분기별 CAPEX & FCF ($B)

기업	분기 CAPEX	분기 FCF	특기 사항
아마존	75.8 (사상 최대)	-33.5	AWS 매출 +39% ($45.98B), 백로그 $578B
알파벳	51.4	-9.1	AI Mode 질문 증가가 검색 단가 희석 — 광고 매출 성장률 17%→12%
마이크로소프트	45.2 (기대 하회)	양호	서드파티 용량 지연. 상업 백로그 +73% ($677B)
메타	34.9	-2.1	Compute 효율 '내년 10배' 목표 — Muse 에이전틱 AI 수익화 전제

구조 변화의 한 줄 요약

결합 기준 4사는 전년 같은 분기 **+36.4B**의 흑자에서 올해 **-45.2B**로 $81.6B 역전했다. 그러나 매출 성장은 유지되고 있다 — 아마존은 5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 메타 광고 급등, 구글 클라우드 매출 2배. **문제는 성장이 아니라 회수 속도**다. 시장이 묻는 질문은 "성장하는가"가 아니라 "언제 돈이 돌아오는가"다.

IV. 핵심 시사점 (Key Takeaways) 및 참고자료

Five Takeaways for Founders, Executives, and HR Leaders

Key Takeaways

#	시사점
1	**AI 인프라는 금리 사이클의 소비자가 됐다.** $131B의 부채 조달은 CAPEX 전쟁의 지불수단을 당기손익에서 장기부채로 옮겼다. 금리 1%p가 곧 인프라 경쟁력이다.
2	**병목은 돈에서 공급으로, 그리고 전력으로 이동한다.** MS의 미달 투자와 백로그 $677B는 공급망(전력·용량·GPU)이 새 선결제 시장임을 확인시킨다.
3	**채용 전형이 곧 기술 표준이 된다.** 기아·HD현대·SK AX·넥슨이 'AI 활용 과정' 자체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산출물이 아니라 검증 과정을 보여주는 경험이 경쟁력이다.
4	**공공 에듀테크의 산출은 채택이다.** 635억 원의 플랫폼도 방문률 1.63%면 배포에 불과하다. 교사를 1차 사용자로 격상하는 리빙랩·소프트랩 모델이 새 유통 계층이다.
5	**국가가 AI 기업의 주주가 된다.** 캐나다 정부의 Cohere 지분 참여(C$1.6B)는 AI 주권의 새 수단이다. 국내에서도 주권 모델·데이터 주권 논의가 정책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참고자료 (발행일 기준 공개자료)

[1] Motley Fool Research, "How Much Are AI Companies Spending on Data Centers?" (2026-11-04)
[2] The Elec, "Big Four Hyperscalers Seek $131 Billion for AI Infrastructure" (2026-11-05)
[3] Data Center Dynamics / SEC 파일링 (아마존·MS·구글·메타 조달 공시, 2026-11 초)
[4] Bisnow, "Stock Sell-Off, Bond Market Jitters Signal Financing Trouble For AI Data Centers" (2026-11-03)
[5] The Verge, "Big Tech's big AI buildout will not end until someone stops it" (2026-11-05)
[6] T4X Briefing, "Alphabet, Microsoft and Amazon signal bigger 2027 spend" (2026-11-04)
[7] EDaily, "美 국채금리 하락, 연준 12월 인상 확률 84%→77%" (2026-11-05)
[8] 한국경제, "환율·채권, 무역 흑자 vs 고유가" (2026-11-01) · KDB Report 제1102호 (2026-11-02)
[9] 트레이딩뷰 경제지표 캘린더 (한국 10월 CPI 2.8%, 미 10월 고용 +165K, 2026-11-03·06)
[10] Bloomberg (OpenAI $11B 첫 트랜치 입금, 2026-11-06) · StartupReader 주간 집계
[11] 문화일보 창간 35주년 특집 "기획부터 검증까지 'AI활용' 능력 평가" (2026-11-06)
[12] 뉴스핌(깨끗한나라 AX, 11-06) · 머니투데이방송(중진공 제조AI 교육센터, 11-06) · 전자신문(유안타증권, 11-05)
[13] 교육플러스, "635억 들인 AIEP, 하루 평균 방문자는 1.6%" (2026-11-03, 국정감사 자료)
[14] 전자신문, "프리윌린, AI 코스웨어 스쿨플랫 서울·전북 에듀테크 소프트랩 선정" (2026-11-03)
[15] 디지털타임스, "아이스크림에듀,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게 AI 디지털 학습 지원" (2026-11-03)
[16] 투데이충남, "대전교육청, 1인 1 AI 튜터 구상 공개" (2026-11-06) · 파이낸셜뉴스, "부산교육청, 스쿨 AI 리빙랩 첫 운영" (2026-11-05)

[NOTE] 본 리포트는 공개자료 기반 산업 분석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다. 수치는 각 출처의 발행 시점 값이며 이후 수정될 수 있다.